



# 한국인의 눈으로 본 근대 일본의 역사

메이지 유신부터 패전까지, 근대 일본의 도약과 몰락을 돌아보다

박훈 지음

2025년 7월 21일 출간 | 판형 135×210 | 352쪽 | 19,800원 |

분야: 역사>일본사, 사회과학>정치학>정치사>일본 | ISBN 979-11-6774-221-6 03910

**“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물음은 무엇인가”**

서울대 역사학부 박훈 교수

**일본의 근대를 통해 오늘의 한국을 성찰하다**

한국인에게 일본은 여전히 ‘가깝고도 먼 나라’다.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이지만, 식민지 지배의 기억과 역사 인식의 충돌, 독도 문제, 과거사에 대한 책임 공방 등으로 인해 양국의 감정의 간극은 쉽게 좁혀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본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태도로 마주해야 할까? 광복 80주년이자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인 2025년, 오랜 대립과 갈등을 넘어 한일관계에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는 지금, 서울대 역사학부 박훈 교수가 《한국인의 눈으로 본 근대 일본의 역사》를 출간했다.

박훈 교수는 이 책에서 일본이라는 나라를 단순히 비판하거나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대신 이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근대 일본의 역사를 읽고, 그 안에서 한국의 오늘과 미래를 되돌아본다. 그는 말한다. “진정한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표면적 화해를 넘어, 서로의 역사를 배우고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지적 노력이 필요하다.” 복잡한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의 전략적 선택을 모색해야 하는 지금, 이 책은 동아시아 지정학을 보다 깊이 이해함으로써 미래 지향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나침반을 제공한다.

**일본의 “죽음의 도약”은 무엇을 남겼는가**

**한국인의 눈으로 질문하다**

이 책은 일본이 본격적인 근대화의 길로 나아간 1853년 페리 함대의 등장부터 메이지 유신, 제국주의 팽창, 전쟁과 패망, 그리고 전후 복구와 한일 국교정상화까지 100년 일본의 질주와 변모, 몰락을 추적한다. 저자가 이 역사를 바라보는 렌즈는 명확하다. 일본은 단지 서구 열강의 외압에 ‘끌려간’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국가의 전환점으로 삼아 능동적으로 ‘도약’에 나섰다. 이른바 “죽음의 도약”이었다.

하지만 이 도약은 동아시아에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다. 조선의 식민지화, 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침략 전쟁,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과거사 갈등까지. 그렇기에 우리는 일본의 도약을 찬탄하거나 규탄하기 이전에, 그 선택의 구조와 동력을 냉정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일본이 어떻게 세계의 변화를 가장 빠르게 감지하고, 스스로 체제 전환을 이뤄내며, 급기야 동아시아의 지배자로 부상했는지를 박훈 교수는 차분하면서도 입체적으로 그려낸다.

흥미로운 점은, 이 책이 단순한 일본사 서술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책은 어디까지나 ‘한국인의 눈으로 본 일본사’다. 저자는 일본을 통해 조선(한국)을 본다. 이 책은 비교사적 관점을 통해 일본과 조선의 선택이 어떻게 달랐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대원군의 개혁과 메이지 유신, 김옥균과 이토 히로부미, 강화도조약과 일본의 통상조약의 차이를 보여주며 단지 역사적 에피소드의 나열이 아니라, 국가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다.

**메이지 유신부터 일본제국의 패전까지**

**근대 일본의 역사를 통째로 꿰뚫다**

책의 1부 <메이지 유신으로 가는 길>은 페리 제독의 개항 요구부터 메이지 유신의 완성까지를 다룬다. 일본이 외세의 충격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조정과 막부 사이의 권력투쟁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국가 체제를 재편했는지를 흥미롭게 풀어낸다. 천황의 정치적 부상과 요시다 쇼인, 사카모토 료마 같은 인물들의 사상과 활동을 통해 당시 일본 사회의 격동과 불안을 생생히 보여준다.

2부 <19세기 한일 근대사의 명암>은 같은 시기를 살아간 조선과 일본의 선택과 결과를 비교한다. 대원군의 개혁과 조선 개화파의 분열, 메이지 유신과 일본 외교 전략의 차이를 통해 조선이 왜 근대의 길목에서 방향을 잃었는지를 되짚는다. 강화도조약부터 갑신정변, 김옥균의 망명과 죽음, 청일전쟁에 이르기까지 19세기 동아시아의 주요 사건을 재해석한다.

3부 <20세기 일본사와 한국>은 일본 제국주의의 팽창과 패망, 그리고 전후 복구 과정을 살핀다. 러일전쟁과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을 거치며 전개된 침략의 역사와 함께 패전 후 일본이 책임을 회피하면서도 경제 대국으로 전환된 과정을 분석한다. 또한 한일 국교정상화, 과거사 사죄, 오늘날의 험한 감정까지 오랜 기간 고착된 한일관계의 뿌리를 역사적 맥락에서 조명한다.

### 규탄보다 통찰을, 분노보다 질문을 택한 역사 읽기

#### 이제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한국인의 눈으로 본 근대 일본의 역사》는 단순한 사건 나열을 넘어 구조적, 입체적으로 역사를 보는 눈을 자극한다. 또한 방대한 자료와 생생한 인물 묘사, 군더더기 없이 간결한 문장을 바탕으로 한 박훈 교수의 스토리텔링은 몰입감을 높이고, 복잡한 사안을 명쾌하게 정리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무엇보다 이 책이 특별한 이유는, 균형 잡힌 시선과 단단한 문제의식에 있다. 저자는 말한다. “근대 일본을 규탄만 해서는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머리는 여전히 무겁다.” 저자는 일본을 미화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감정에 매몰되지도 않는다. 그는 단지 일본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했는가’를 묻고, 그 물음 안에서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는지를 되짚는다. 나아가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되돌아보게 이끈다. 역사는 도덕적인 교훈담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가 직면한 선택과 결과의 누적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책은 그 누적의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성찰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일본사이자 한국사이고, 과거이자 현재이며, 역사책이자 미래를 준비하는 안내서가 되어줄 책이다. 일본이라는 타자를 통해 나를 성찰하는 일, 그 길에 이 책이 훌륭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이다.

## 차례

### 책머리에

#### 제1부 메이지 유신으로 가는 길

- 1장 페리 함대의 출현과 막부의 대응
- 2장 천황의 등장과 반막부 세력의 대두
- 3장 막부 타도와 메이지 유신의 성공

#### 제2부 19세기 한일 근대사의 명암

- 4장 서양의 충격과 한일의 대응
- 5장 1880년대 조선의 반청투쟁
- 6장 일본과 한국 개화파

#### 제3부 20세기 일본사와 한국

- 7장 근대 일본의 제국주의와 민주주의
- 8장 일본 군부의 대두와 군국주의
- 9장 대일본제국 패망과 전후 한일관계

## 저자 소개

### 박훈

서울대 동양사학과에서 학사·석사를, 도쿄대에서 박사학위를 마친 뒤, 국민대 일본학과를 거쳐 현재 서울대 역사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19세기 일본과 동아시아의 정치체제 비교, 일본인의 대외 인식과 내셔널리즘의 형성 과정을 연구해왔다. 저서로 《위험한 일본책》, 《메이지 유신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메이지 유신과 사대부적 정치문화》 등이 있다.

## 책 속에서

18세기 일본은 전체 인구도 많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도시 인구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는 점이다. 일본의 3대 도시로 일컬어지는 에도(100만 명), 오사카(38만 명), 교토(34만 명) 외에도 각 번의 수도인 조카마치도 인구가 수만 명에 이르렀다. 18세기 중엽 베이징의 인구는 100만 명, 런던 65만 명, 파리 55만명을 헤아렸고, 서울은 30만 명을 밑돌았다. 에도는 세계 최대 도시 중 하나였다. (23쪽, 1장 페리 함대의 출현과 막부의 대응)

페리가 떠난 후 아베 마사히로는 개혁정책을 밀어붙였다. 먼저 나가사키에 해군학교를 열었다. 그다음 해안이다. 바다에서 물고기나 건져 올려서는 나라의 명줄까지 내놓아야 하는 세상이 됐다는 걸 간파했기 때문이다. 네덜란드 교관을 모셔와 조선술, 항해술 등을 가르치게 했다. 막부나 번을 막론하고 우수한 가신을 입학시켜 미래의 해군 인재를 기르기 시작했다. 실

력 있는 외국인을 최고 대우로 고용해 일본인 제자를 양성하게 하는 것은, 이후 근대 일본이 채택한 발전 전략의 출발점이다. 이로부터 불과 50년 후인 1905년에 일본 해군은 쓰시마 해전에서 러시아의 발트 함대를 궤멸시켰다(러일전쟁). (28쪽, 1장 페리 함대의 출현과 막부의 대응)

막부와 사무라이들이 천황과 신하들을 ‘긴 소매 입은, 유약하고 세상물정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업신여기며 자만에 들떠 있는 사이, 교토는 느리지만 착실하게 변하고 있었다. 막부가 통상 조약 칙허를 얻기 위해 훗타 마사요시를 파견했던 1858년에 고메이 천황은 재위 12년째를 맞는 27세의 청년 군주였다. 이상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고 학습해온 이 젊은 천황과 신하들이 개항이라는 국가의 대위기를 맞아 독자적인 정치 행보를 보인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다. 눈에 잘 보이지 않았지만 오래 누적된 변화가 수면 위로 드러나는 순간, 세상이 경악하는 일은 역사에서 드물지 않다. (47쪽, 2장 천황의 등장과 반막부 세력의 대두)

요시다 쇼인이 메이지 유신의 과격한 이상주의, 광신적 민족주의, 잠재적 침략주의를 대표한다면, 사카모토 료마는 명민한 현실주의, 국제 정세에 대한 통찰, 점진적 평화주의를 상징한다. 아베 신조는 요시다 쇼인을,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사카모토 료마를 좋아한다. 민족주의와 제국주의 시대에는 요시다가 빛났겠지만, 미래의 일본은 사카모토에게서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108쪽, 3장 막부 타도와 메이지 유신의 성공)

사카모토 료마는 에도에서 가쓰 가이슈를 만났다. 막부 측 인사 중 당대 최고의 양학자이면서 일본 해군의 기초를 놓은 인물이다. 가쓰를 만난 사카모토는 해군과 무역의 중요성에 눈을 떴다. 바다의 주인이 세계를 제패할 것임을 직감했다. 그는 가쓰의 뜻을 이어받아 나가사키에 가메야마사추를 설립했다. 무역상사 같은 조직이다. 신분을 불문한 인재영입, 무역, 외국어 학습, 그리고 예조(현 훗카이도) 개척을 목표로 했다. 이게 나중에 도사번의 정식 지원을 받아 근대 해군이자 무역상사인 가이엔타이로 발전하게 된다. (110쪽, 3장 막부 타도와 메이지 유신의 성공)

1864년 대원군이 집권한 때는 일본에서는 막부와 반막부파(사쓰마번, 조슈번)가 부국강병과 근대화 경쟁에 뛰어들기 시작한 해였다. 누가 이기든 일본의 갈 길은 정해져 있었다. 부국강병과 서양화로. 그리고 4년 후 메이지 유신이 발발했다. 대원군은 집권 10년 만인 1873년에 실각했다. 그 스스로 왕이 되지 못한 한계였다. 배후조종은 언제나 위협하고 한계가 있다. 그를 대신한 고종과 민씨 정권은 힘겹게 노력했지만 대원군 같은 강력한 정치 리더십이 없었다. 그 후로 조선이 망할 때까지 그만한 강력한 지도자는 나오지 않았다. 리더십은 커녕 60년에 가까운 긴 시간 동안 조선의 정치 리더십은 철저히 분열했다. (164쪽, 4장 서양의 충격과 한일의 대응)

몽상을 하는 이유는 콤플렉스 때문이었다. 서양과 중국에 대한 소국 콤플렉스, 300년 동안 쇠국으로 열도 안에 갇혀 있던 데서 오는 자폐적 자기인식, 그리고 개항 과정의 굴욕감에서 오는 콤플렉스 등등. 그러나 몽상도 자주 하면 여론이 되고 급기야 진짜 현실로 만들려는 움직임도 생기기 마련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몽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수 있어야 하고,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야 할 정치적 이유와 정치세력이 있어야 한다. 메이지 유신 직후부터 비등하기 시작한 정한론은 바로 그런 환경에서 등장한 것이

다. (173쪽, 4장 서양의 충격과 한일의 대응)

‘식민지 조선’은 일본제국에게 과연 무엇이었던가. ‘식민지 조선’은 여러모로 특이했다. 먼저 조선은 일본의 이웃 나라였다. 서양 국가들도 세계 각지에 식민지를 갖고 있었지만, 바로 옆 나라를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 (...) 게다가 조선은 1000년 이상 독자적인 왕국을 유지해온 나라였다. 당시 일본인들은 조선은 한사군 이래 중국에 종속되어온 나라라고 강변했지만, 자기 들끼리는 조선을 가리켜 ‘천 년 왕국’, ‘자존심이 세고 위아래를 모르는 민족’ 운운한 걸 보면 조선이 독자적인 국가였음을 내심 인정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한국합병 당시 대한 제국은 여느 식민지들과는 달리 어엿한 국기(태극기)도 갖고 있었고, 많은 사람이 이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구한말 정치 집회 장면을 보면 갓 쓰고 흰옷 입은 사람들이 대형 태극기 아래 모여 있는데, 이들은 이미 ‘백성’(인민)이라기보다는 ‘국민’이었다. (259쪽, 7장 근대 일본의 제국주의와 민주주의)

어리숙한 줄 알았던 중국인들이 일본의 도발에 단결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흠어진 모래알 같은 중국인들에게 ‘내셔널리즘’을 선물했다. 장제스는 여기에 재빨리 올라탔다. (...) 아무리 쥐어짜내도 일본은 중국을 완전히 장악할 수 없었다. 땅은 너무 넓고 사람은 너무 많았다. 식민지 조선에서 밥그릇까지 공출하고 조선인을 병사로 동원해도 밀 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 진흙탕에 빠져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어느 나라나 혼미할 때가 있고 약해 보일 때가 있다. 금방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은 유혹을 느끼게 된다. (...) 게다가 당시 일본의 상대는 중국이었다. 1941년 일본군은 미국과 동남아시아에까지 전선을 확대했지만 중국의 반격이 두려워 중국 주둔군을 빼내지 못했다. 대일본제국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늪에 빠져 익사한 것이다. (292쪽, 8장 일본 군부의 대두와 군국주의)

그런데 왜 한국인은 계속 사과를 요구하는 걸까. 우선은 위에 소개한 일본의 사과 사실 자체를 기억하는 한국 시민이 많지 않을 것이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일본인들의 ‘망언’이다. “창씨개명은 조선인이 원해서 한 것”, “식민지시대에 일본은 좋은 일도 많이 했다”, “전쟁터의 위안부는 필요한 제도였다” 등 수시로 터져 나오는 ‘망언’들은 위의 ‘사과 릴레이’를 순식간에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게다가 ‘망언’을 한 사람들이 일반 시민이 아니라 현직 장관, 유력 정치인이었기에 더욱 분노를 유발했다. 한국인이 일본의 사과를 ‘진정성이 없다’며 의심하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341쪽, 9장 대일본제국 패망과 전후 한일관계)